

기고

경청(傾聽)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결실을 맺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양적 성장을 목표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실적을 과시하기에 좋은 공공 인프라 확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작게는 몇십억원부터 많게는 몇백억원까지 혈세가 투입되는 공모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중 약 40%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는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역구인 봉산·수북·대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담양군 12개 읍면의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개선을 끊임없이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도 다니기 힘들다"는 주민의 하소연, 수역원이 드는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일의 불편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의 밝은 얼굴에서 의정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번지르르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고향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자 '들음(聽)'의 구성을 보면 귀(耳)+임금(王)+열개(十)의 눈(目)+하나(-)의 마음(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처럼 귀를 열고 열 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즉,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상대를 살피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잘 듣는 것을 경청(傾聽)이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잘 듣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흔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최대 덕목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빛나는 주민들은 권한있는 자의 책임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생활민원을 충분하게 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민원 하나라도 성실껏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민생 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잘 듣고 충분히 배려하는 것,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때 주민은 행복합니다.

담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관훈

해마다 설이 다가오면 거리는 분주해 지지만 정작 마음은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다. 설은 여전히 달력에만 있지, 그 안에 담겨있는 명절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0년 전만 해도 한복 입고 웃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는 것은 당연한 전통놀이였다. 그뿐만 아니라 설날 아침 한복을 입고 성묘에 가서,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며, 조상님께 새해 인사 올리는 모습이 마치 멀리서 훗송이처럼 보여, 잠으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성묘대행업체라는 것이 생겨서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행업체가 한복을 착용하고 과일, 떡, 술 같은 제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린들, 과연 당사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복(福)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 설날이라는 명절을 준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통과 명절의 의미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설날다운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하고 싶어 절차를 지키기도 한다.

필자는 명절이면 개량한 한복을 줄곧 착용해 왔지만,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행동하는데 자연스럽고 편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복차림을 불편한 전통 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고유 전통 한복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입어 왔다. 조선시대 이르러서 한복 형태가 정착했고, 남성은 저고리와 바지, 여성은 저고리와 치마가 기본 의상이었다. 근대 이후 일상복으로 쓰이지 않고, 의례용, 행사용으로만 착용하였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명절의 꽃 한복을 입자

근래에는 고궁이나,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 대여 서비스가 활발하다. 우리는 입지 않으려고 하고, 외국인도 입으려고 하는 문화적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한복의 보전과 홍보는 글로벌 외국인의 관심 덕분에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한복의 시련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한국전쟁 이후 한복 의상이 기생들이 즐겨 입은 옷으로 전락하는 때도 있었다. 이 당시 기생들은 한복차림에 뽀족 구두를 신고, 속바지와 버선도 착용하지 않는 차림으로 일상이 되어 우리 고유의 예술적 한복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다.

명절 때 아랫사람이 한복 입고 세배할 때 세배돈 주고 싶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맛과 품격을 갖춘 예의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복만의 고유한 선과 색감이 주는 우아함이 있어서 특별한 날 입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복을 왜 입어야 하

는가?

첫째, 한복은 명절 이미지이다. 한복은 오랫동안 설, 추석 같은 명절과 함께 인식되어 온 전통 의복이므로 한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명절이라는 시각적, 문화적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한복은 가족 모임, 차례, 세배 같은 명절을 활동과 잘 어울려서 명절 특유의 분위기와 감정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절 이미지로 자리 잡은 한복을 실제 착용함으로써 명절 문화와 전통 복식 형식이 아닌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둘째, 한복은 설명보다 연출을 기억하게 한다. 말로 배우는 정보가 아니라, 찬란한 장면을 기억한다. 한복 입고 웃는 모습, 그날 내가 주인공 같은 기분, 불편해도 예쁘다는 기분 좋은 말, 셀 폰에 사진 한 장 담은 맛있는 기분, 짧은 하루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한복은 아이들에게 정보가 아니라, 기억되는 풍경으로도 남는

다.

셋째, 한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한복이 불편하다는 것은 대부분 크기가 맞지 않거나 격식용으로 너무 딱 조여 입기 때문이다. 청바지 넥타이 정장도 상황에 따라 불편하듯 한복도 의례, 행사용이라는 맥락에서 불편함은 같다. 따라서 한복의 가치를 편리한 일상복 기준으로 평가하면 전통 의복의 목적을 놓치게 된다.

어떤 한복 전문가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성을 현대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나온 것이 '생활한복이다'라고 했다. 이 한복은 익숙함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불편리한 옷은 아니다.

한복은 명절에만 입은 옷이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평상시에도 입었던 사례처럼 입어야 한다. 어린이도 입고 학생, 직장인, 정치인, 고관에 이르기까지 입어야 한다. 대통령도 입고, 영부인도 입어야 한다. 요즘 김해경 영부인의 한복 차림은 절제된 품위와 안정감으로 패션 외교에 한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의 위력은 시선을 장악하고, 무대의상, 국내외 행사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한국적 전통 의상이다.

남녀가 한복차림으로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성묘하고, 가족 단위 웃놀이, 하투 놀이 등 했을 때 고급스럽게 변화하는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 아름다운 한복은 우리 문화에 생명력과 함께 피어나는 명절의 꽃이다.

이번 설날 꼭 입자! 명절의 꽃 한복을!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음력 12월 2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animals and daily fortune predictions in Korean.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Kwangju Expressway.